

찾아진 이상기후, 기후보험으로 극복 모색

- 기후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후전략간담회’ 3차 회의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2일 오후 에스(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제3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3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에 이어 기후보험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3차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보험 상품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재학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기후 위기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확보 방안’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국내외 출시된 기후보험 상품과 금융부문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에 따른 금융산업 전반의 영향을 분석하는 리스크 측정 수단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후 보험은 개인과 산업의 위험(리스크)을 분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기후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전략 간담회 제3차 회의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위기대응단	책임자	부단장	고덕규 (044-201-6403)
		담당자	사무관	이재민 (044-201-6405)



1. 추진 배경

-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 및 미래 어젠다 발굴을 위하여 주요 기후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의 장 마련 → 논의결과 정책 환류 추진

2. 회의 개요

① 일시/장소 : 3월 12일(水) 15:30,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② 주제/발제

- (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과제
- (발제) ①기후보험 상품 현황 및 발전방향(보험연구원)
②기후위기로 인한 보험회사 건전성 확보 방안(금융감독원)

③ 참석자

- (환경부) 장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기후적응과장
- (발제자) ①이승준 연구위원(보험연구원), ②황재학 수석(금융감독원)
- (전문가) ①한상용 실장(한국금융연구원), ②권병근 상무(손해보험협회),
③김태후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④송영흡 전무(코리안리)

④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5:30~15:35	5'	• 개회 및 인사 말씀	장관
15:35~15:45	10'	• 기후보험 상품 현황 및 발전방향	보험연구원
15:45~15:55	10'	• 기후위기로 인한 보험회사 리스크 및 건전성 확보방향	금융감독원
15:55~16:55	60'	• 토론	참석자 전원
16:55~17:00	5'	• 마무리 말씀	장관